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8 ~ 1/14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2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7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
3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샘앤파커스	8	날마다 새롭게	일여	예담
4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9	붓다 수업	법상	민족사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10	능가경 강의	남희근	부키



스님 그리워서...



나홀로 가노라 만고의 진리를 향해
성철스님문도회 편찬 1만6천원

“해만큼 크고 밝은 연꽃 한 송이 달만큼 크고 맑은 연꽃 한 송이 향기로이 향기로이 해인사에 피어나 이 나라와 온누리에 그 향기를 적시나니 열반드신 님의 향기 우리들을 적시나니

가야산갈은 어지신 모습으로 백두산갈은 신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로 또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로 바른 열반의 도리를 일깨우시며 오고 계시나니

배울지어다 배울지어다 영원히 변함없는 꽃다운고 바른 목숨의 길 배워서 의젓한 사람들로 살지어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지어다 이 어른께 삼천번의 마음의 절을 올릴지어다

이념에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치신 삼천번의 절을 올려 그 은혜를 갚을지어다 이념의 열반에 가즈런하도록 그 은혜를 두루 다 갚아 드릴지어다”
-미당 서정주·성철 큰스님

열반 기일을 맞아 성철 스님을 추모하며 썼던 글 69편이 수록되어 있다.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의 제1장 '가야산의 호랑이'는 법전, 일타, 지관 법정 스님 등 15명의 스님들이 성철 스님을 기억하는 글들을 모은 것으로 성철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어떠했는지를 보여 준다.

제2장 '동구불출(洞口不出), 그 역사를 찾아서'는 10년간 암자를 벗어나지 않은 동구불출 수행의 역사와 넓지 않고 수행하는 장좌불와의 신화를 증빙하는 서용, 혜암, 법전, 도우, 일각 일타, 혜춘, 묘엄 스님과의 인터뷰이다. 두루 순방하며 참문(參問)한 필자는 성철 스님의 시자 유택 시인의 헌시를 필두로 박완서, 고은 등의

제3장 '겨레의 스승' 편은 미당 서정주 시인의 헌시를 필두로 박완서, 고은 등의



그림 · 김호석

성철스님문도회가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과 열반 2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추진해온 기념사업의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열반을 애도하는 글들을 모아 엮었다.

다시금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어 겨레의 정신을 곧추세움에 그 역할을 하자는 성철스님문도회의 뜻이 담겼다. 백련불교 문화재단 이사장 유택 스님은 간행사를 통해 이 책을 출판하면서 “지난 세월, 스승님이 떠나신 이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리고 또 앞으로는 큰스님이 가르쳐주신 깊은 뜻을 ‘어떻게 세상에 펼쳐가야 하는가’라는 또 하나의 가파른 능선에 선 듯하다.”고 말했다.

책은 불교인, 언론인 그리고 문화예술인 등 각계의 저명인사가 신문, 잡지에 기고했던 글들과 이후 제자, 신도들이 매년

문인들과 이규태, 최일남 등의 언론인, 김지경, 이병주, 목정배 교수 등 학자 총 25명의 인사들이 그 당시 큰스님의 열반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가르침을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글 모음이다.

제4장 '삼천배'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던 신도 20명이 어떻게 큰스님의 인연을 맺고 어떻게 정진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의 이야기들이 소개된다.

책은 여러 사람의 여러 글을 모은 것이지만 역사가 된 선지식의 지간간 자국을 더욱 선명하게 보존하기 위한 뜻임에는 한 뜻이다. 흠어진 사진들을 한 권의 앨범에 모으듯 여러 사람들의 기억과 생각들을 모아 한 시대가 의지했던 스승의 가르침과 그의 행적을 좀 더 뚜렷하게 남겨 놓기 위한 정성이다.
박재원 기자

<이렇고 선지식 총서> 1~4권

도서출판 비움과 소통에서 기획한 '이렇고 선지식 총서' 시리즈 1권부터 4권, <쿠투명 없는 소>, <세상선 산수도>, <전인 미답지를 알려주마>, <어디서 왔소?>가 출간됐다.

쿠투명 없는 소-경허대사와 5대 제자

김성우 엮음 | 1만천원

경허대사와 5대 제자의 선문답 해설서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눈앞에 있느니라.”
“눈앞에 있다면 왜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너에게는 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느니라.”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다면 더욱 보이지 못하느니라.”
“나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선사가 말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어떤 학인과 만공선사의 문답이다.

한국선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허(鏡虛)선사와 그의 문하의 대표 선지식 5인의 선문답을 해설했다. 이 책은 조사선 그리고 간화선 수행법 중에서 진리를 묻고 깨달음을 달하는 선문답의 세계로 초대한다. 바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불법을 깨달음의 삶으로 적용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경허선사의 세 달'로 불리는 수월음관(水月音觀)선사, 해월명혜(慧月慧明)선사, 만공월면(滿空 月面)선사뿐 아니라, 조계종을 대표하는 한암 스님, 용성 스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삶은 구도자들의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흔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선문답'이라고 하지만 실상 선문답은 집착과 분별을 떠난 일상의 진리를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젊은 스님의 물음에, 경허 스님은 “그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거. 착함이면 악함이면 하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든 다 하거. 망설임과 후회만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짓이든 지 다 하거. 바로 이것이 산다는 것일세”라고 답했다.

“불법은 애써 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상대로 아무 일 없는 것이다. 똥 싸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눕는 것”이라고 했던 임제선사의 말처럼 일상에서 대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펼쳐지는 선사들의 삶은 그 자체가 법문이다. 경허 스님은 만년에 스님이나 선사의 굴레

도 벗어버린 채 마음 혼장을 하며 '저자거리 보살행'을 실천했고, 제자인 수월 스님 또한 간도에서 고향을 떠난 동포들에게 쥔 신과 주먹밥을 보시하며 살았다.

본문에는 먼저 선화(禪話)를 보이고, 문답의 숨은 뜻을 드러내 독자들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세상선 산수도-성수대종사 선어록

김성우 엮음 | 1만2천원

가섭의 웃음이 미소인지, 비소(非笑)인지 알아야

한국적 선문답의 전형으로 알려진 성수 스님의 선법문집이다. 성수 스님의 '구도기'와 '선문답', '선법문'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흔히, 선문답은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불가에서 선문답은 당대 선사들이 수행자들을 깨닫게 하는 언행일 뿐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행지침 안내서다. 또한 그 자체에 진리와 지혜가 숨어 있어, 단박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긴 여운을 남기는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선문답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탐구하는 과정이며, 염화시중에서의 가섭 존자의 미소가 그 시작이었다.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는 법왕의 연꽃을 부처님이 들어보이자 가섭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 이에 부처님은 가섭에게 정법안장 등의 진리를 전해 주셨다. 즉 말을 하지 않고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선 수행의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는 근본 화두가 염화시중인 것이다. 그 후로 여러 눈 밝은 종사들이 부처님의 교시 내용을 주제로 수 천 년 동안 서로 감론을박을 하며 치열하게 점검해온 기록이 선문답이다.

1부에는 스님의 구도기가 실려 있고, 2부에는 스님이 생전에 선객들과 주고받은 선문답 34편이 실려 있다. 3부에는 사부대중에게 주셨던 15편의 선법문이 실려 있다.

스님은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염화시중 때 가섭의 웃음이 미소인지, 비소(非笑)인지 흑백을 가릴 줄 알아야만 안목이 된 경계에 팔려 있으면 비록 염불을 하고 부처님의 경을 읽어도 외도가 되어 앉아 있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가운



많지만, 부처와 가섭 사이에 오고 간 것이 미소인지 비소인지 흑백을 가려볼 만한 안목이 있는 이는 매우 드문 것 같다.”며 ‘내가 구도자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속히 눈밝은 선객자를 찾아 생로병사가 두려우니 그 밖이 어디인지, 생사 해탈법을 배우는데 전심전력하여 생사장야(長夜)의 긴 꿈에서 깨어나라고 말한다.

전인 미답지를 알려주마

-정일선사 선어록

정일선사법어집편찬위원회 엮음 | 1만 1천원

선이란 무엇인가...

미세망념(微細妄念)도 없는 것

“선(禪)이란 모든 번뇌가 쉬어 일체의 미세망념(微細妄念)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선이란 생사가 없는 경지를 터득한 용(用)을 말합니다. 즉 상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성인 그 자리에서 나오는 용심(用心)이 바로 선입니다. 선은 크게 보아 최상승선, 대승선, 소승선, 외도선이 있습니다.”

책은 조계종의 대표적인 선사로 선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정일 스님이 간화선 수행법을 일목요연하게 전하는 간화선 수행법의 수행지침서다.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선의 개념과 종류, 일구와 이구, 묵조선과 간화선, 조사선과 여래선, 인도선과 중국선에 대해 짚어주어 선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제2장에서는 '화두'에 대해 짚어주고 있는데, “화두는 본심자리를 그대로 드러낸 경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두라고 하면 옛날 선사들이 던져주신 연구(言句)를 일컫기도 합니다.”고 말한다. 제3장에서는 '정법과 외도를 말하는데, '외도라는 말은 부처님의 법 이외의 여러 가지 수행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해도 안으로 쉬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사된 경계에 팔려 있으면 비록 염불을 하고 부처님의 경을 읽어도 외도가 되어 앉아 있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가운

데서 정법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고 말한다.

제4장에서는 '외도와 신통', 제5장에서는 '업과 인과', 제6장에서는 '참선기초 수행법', 제7장에서는 천도제, 제8장에서는 '유비파멸', 제9장에서는 '현대과학', 제10장에서는 '영가장애와 신기', 제11장에서는 '선어록', 마지막 제12장엔 정일 스님의 행장이 실려 있다.

어디서 왔소?—활안큰스님의 선법어집

김성우 엮음 | 1만2천원

이 마음 밖에서 또 다시 구할 것이 없다

“대저 부처라, 법(法)이라, 천당이라, 극락이라, 지옥이라, 축생이라, 아귀라 하는 것을 어찌 다른 곳에 나가서 찾기를 구하리오.”

책은 평생 일체의 법문을 문자로 기록하지 않았던 활안 스님의 수행과 사상, 언행을 배울 수 있는 선법문집이다. 녹음해 두었던 활안 스님의 대중법문을 풀어쓴 책으로, “실천이 없는 불교, 이타행(利他行)이 없는 자리행(自利行)은 절름발이 수행일 뿐”이라는 평소 가르침이 글의 곳곳에 담겨 있다.

“어디서 왔소?”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은 천자암을 찾아오는 객들에게 출제자를 막론하고 이런 질문으로 첫 인사를 건넨다고 한다. 이 말에는 “그대의 본성은 어디에 있는가?”란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 수행자를 시험하는 노름수가 담겨져 있다. 여기서 여자 잘못 대답하거나 조금 아는 체를 한다든가 하면 친견은 고사하고 곧바로 쫓겨나기 일쑤다. 그래도 조금 씩수가 보이면 공간에서 공양이나 들고 가라고 한다.

스님의 선법문집인 책은 활안 선사의 수행과 사상, 언행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의 불립문자의 가풍을 엿볼 수 있는 책은 '언어도단 심행처멸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 없는 문'의 관문이 될 것이다. 책은 1부 '활안 선사의 삶과 깨달음', 제2부 '선이란 무엇인가', 제3부 '세상을 향한 자자후'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재원 기자

“그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KBS 아침마당을 따듯한 미소로 물들인 마가 스님의 '인생을 건너가는 마음 수업'

가슴 시린 출가부터 중앙대 최고 인기 강사가 되기까지의 감동 스토리 전격 출간!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마가 글 256쪽 13,000원

함께 넘어졌다 함께 일어나는 갈대처럼, 우리도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가 사람 덕분에 일어섭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도 분명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많이 아팠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것지요. '그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알고 보면 괜찮은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관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언론에서 집중 조명된 화제의 책!

